

# 일상예찬... 소박한 섬의 나날이 전하는 위안

한라일보 갤러리이디 초대전  
고은·김성오·이미선 3인3색  
10월17일부터 11월27일까지

그들에게 고향 제주는 따뜻함이다. 살아갈 힘이다. 한라일보 1층에 자리 잡은 갤러리 이디(ED)가 이 계절 펼쳐는 고은·김성오·이미선 3인 초대전으로 향하면 그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가을여행'이란 이름을 단 이번 초대전은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코로나 시대에 제주도민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작품들로 채워진다. 일찍이 청년작가로 주목받았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확실히 쌓아 가고 있는 세 명의 작가가 3인 3색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낸다.

고은 작가는 사라져가는 제주의 슬레이트집과 소소한 사연들을 작품에 담아냈다. 그것들은 가슴 한 칸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던 감성을 일깨운다.

이번 전시에는 '바다주기', '행복한 풍경' 연작 등이 나온다. 열정으로 가득 넘치는 날에는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일상에 쫓겨 험겨울 때면 휴식을 찾아 숲을 걷는다는 고 작가는 "말없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는 바다와 숲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할 것"이라며 창작 배경을 전했다. 지금까지 열한 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제주대 미술학과, 성신여자대학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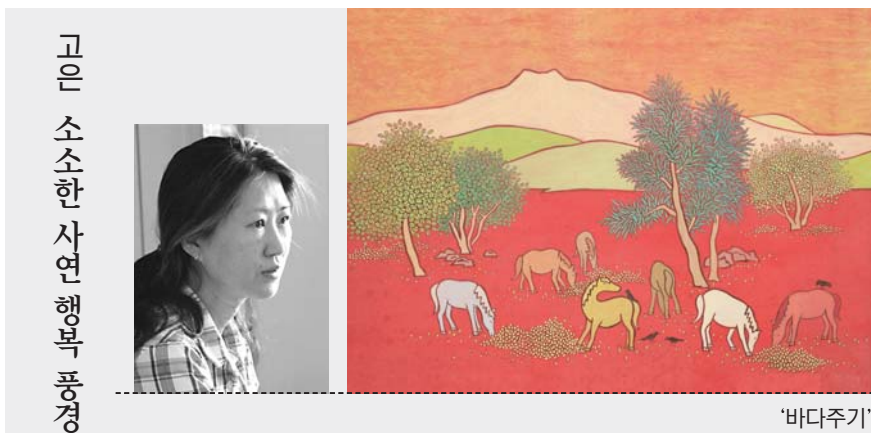
양화과를 졸업했다. 김성오 작가는 제주 오름을 핵심 주제로 삼아 작업을 벌여왔다. 삼나무 숲과 밤나무 밭, 돌담 넘어 펼쳐진 초원. 그 위에 부드럽게 솟은 오름이 있다. 오름을 오가며 만났던 때 오르고 사라지길 반복하는 태양, 뒤이어 얼굴을 내미는 별들의 유희는 그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풍경이다. 오름은 그에게 이어진다.

김 작가는 제주의 색을 주저없이 밝은 색이라고 말한다. "불과 생명 그리고 강렬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데우리들', '오름꽃', '황금정원' 등을 볼 수 있다. 제주대 미술학과를 졸업했고 아홉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이미선 작가는 습설 기운이 소진되고 권태가 밀려올 때면 자연을 찾는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다. 이 작가에게 자연의 소리는 '치유의 음악'이다. 초대전엔 '눈부신 봄날'이란 부제가 달린 작품 등 '치유의 정원' 연작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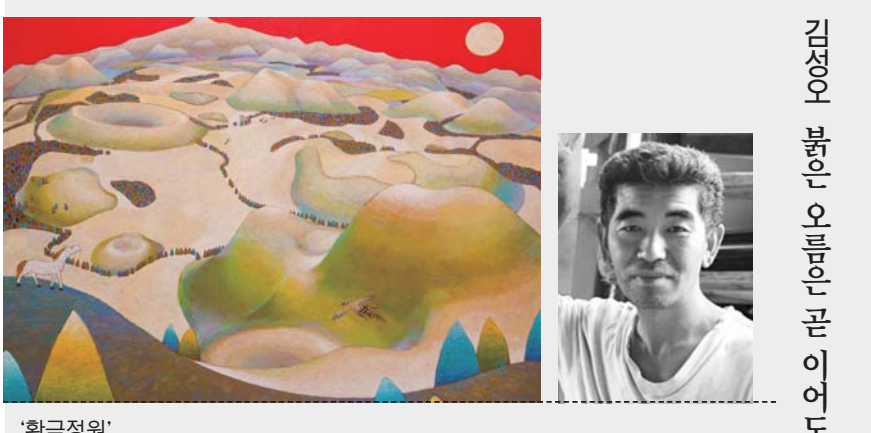
이 작가는 "맑은 이슬을 머금고 달콤한 체취를 발산하는 나뭇잎들이 바람에 서걱인다"며 "산이 전해주는 시각적 매력을 눈에 담고 마음에 새긴다. 한결같은 풍광에 감사하다"고 했다. 초대전을 합쳐 열네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동덕여대 회화과, 중국 노신 미술대학원 중국화과를 마쳤다.

전시는 이달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3시에 간소하게 치른다. 전신회기자



고은

소소한 사연 행복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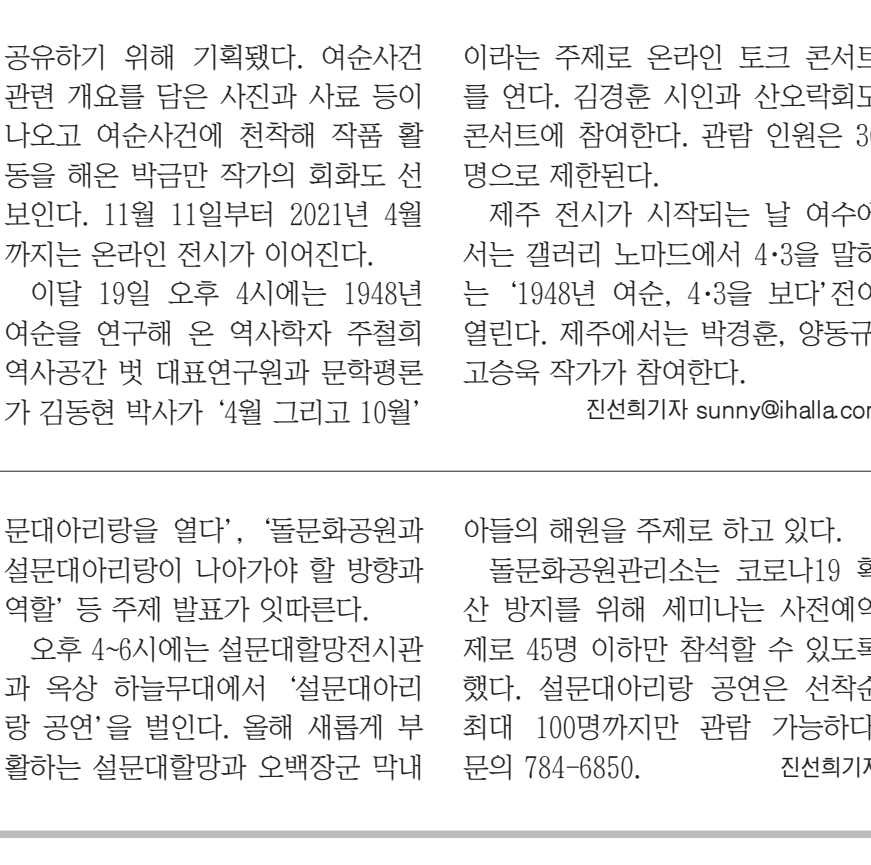
'바다주기'



'황금정원'

이미선

눈부신 날 치유 정원



## 제주4·3과 여순, 동시대의 서사

오늘부터 원도심 포지션 민 '4월 그리고 10월' 이야기도 여수에서는 4·3다룬 전시회

제주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 명령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1948년

여순 사건을 다룬 전시회가 마련된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포지션 민에서 펼쳐는 4·3 72주년 특별전 '1948 제주, 여순을 보다' 전이다.

이번 전시는 제주4·3과 여순 사건이 동시대의 역사적 서사라는 점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여순사건 관련 개요를 담은 사진과 사료 등이 나오고 여순사건에 전착해 작품 활동을 해온 박금만 작가의 회화도 선보인다. 11월 11일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온라인 전시가 이어진다.

이달 19일 오후 4시에는 1948년 여순을 연구해 온 역사학자 주철희 역사공간 벵 대표연구원과 문학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4월 그리고 10월'

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연다. 김경훈 시인과 산오락회도 콘서트에 참여한다. 관람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된다.

제주 전시가 시작되는 날 여수에서는 갤러리 노마드에서 4·3을 말하는 '1948년 여순, 4·3을 보다'전이 열린다. 제주에서는 박경훈, 양동규, 고승욱 작가가 참여한다. 전신회기자 sunny@ihalla.com

돌문화공원 설문대아리랑 내일 세미나·공연 잇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이달 16일 '2020 설문대아리랑'을 펼친다.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대

표하는 총체예술 작품으로 기획된 행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학술세미나를 연다. '문화의 시대, 설문대할망 신화와 아리랑'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아리랑의 선율을 따라 설

문대아리랑을 열다', '돌문화공원과 설문대아리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등 주제 발표가 잇따른다.

오후 4-6시에는 설문대할망전시관과 옥상 하늘무대에서 '설문대아리랑 공연'을 벌인다. 올해 새롭게 부활하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막내

아들의 해원을 주제로 하고 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미나는 사전예약제로 45명 이하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대아리랑 공연은 선착순 최대 100명까지만 관람 가능하다. 문의 784-6850. 전신회기자

## 시(詩)로 읽는 4·3 (79)

### 조국은 하나다

김남주

나는 또한 쓰리라  
사람들이 오고가는 모든 길 위에  
조국은 하나라고  
만나고 헤어지고 또다시 만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눠 갖는 우리네  
인생길  
오르막 위에도 쓰고  
내리막에도 쓰리라  
조국은 하나라고

파도로 사나운 뱃길에도 쓰고  
꿇어진 남과 북의 철길 위에도 쓰리라  
  
오 조국여!  
은누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  
이어 이름이여  
나는 또 한 번 쓰리라  
사람의 눈길이 닿는 모든 사물에  
조국은 하나라고  
- '조국은 하나다' 중에서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제28주년 3·1기념대회'가 열린 제주북국민학교 주변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회장인 안세훈은 "3·1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세우자"는 오지의 연설을 했다. 바로 '조국은 하나다'라는 정신에서 출발하였다. '조국은 하나다'는 '창작과비평'에 '갯뚝미'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한 김남주(金南柱 1946~1994) 시집이다. 시인이 전주교도소에서 출감되기 전, 후배들이 그의 시 애독자를 위해 이전의 시집 '진혼가'와 '나의 칼 나의 피'에 실렸던 시편들, 그리고 옥중에서 새로 쓴 시를 총 망라해 212편의 시를 모아 시집을 엮었다. 김남주는 자신을 시인이라기보다 전사(戰士)라고 했다. 시는 그

에게 이 시대의 모순을 꿰뚫는 무기였다. 자유와 평등, 통일을 위한 도구였다. 그것이 바로 4·3정신과 맥이 통하는 것이 아닐까? 지선 스님은 그의 시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명쾌하고 활발(活潑)하다고 했다. 염무웅 평론가는 그가 느끼는 고통은 '동시대의 쓰러린 자부심'이라 했다. 이 시는 민중적 서정성과 전투적 이념성이 병존하는 등 한국민중문학사의 걸출한 창단에 등단한 김남주(金南柱 1946~1994) 시집이다. 시인이 전주교도소에서 출감되기 전, 후배들이 그의 시 애독자를 위해 이전의 시집 '진혼가'와 '나의 칼 나의 피'에 실렸던 시편들, 그리고 옥중에서 새로 쓴 시를 총 망라해 212편의 시를 모아 시집을 엮었다. 김남주는 자신을 시인이라기보다 전사(戰士)라고 했다. 시는 그

### 문화가 쫓지

제주학센터 고전 강독회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10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2020 제주고전 강독회'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강독서는 백호 임제의 '남명소송'과 심재 김석익의 '탐라기년'이다. 홍기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과 백규상 제주동양문화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강의를 맡는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http://naver.com/58hmvffFK)으로 하면 된다. 문의 747-6137.

외도동 숨은 보물 찾기

민요패 소리맞이 굿다락도문화학교 프로그램인 '외도동 숨은 보물 찾기 프로젝트-월대에 나를 비추리' 2기 초등학교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2기 프로그램은 내도, 외도, 도평, 신산, 연대 등 외도동의 유산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맑은 물에 달이 비추고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월대, 알작지로 유명한 내도 등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마을의 가치를 나눌 예정이다. 문의 721-4967.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